

**종합**

# “현대미술 편견 깬 기획 돋보였다” “영상·사진에 편중 관객들 지루해”

## 광주비엔날레 프레스오픈 국내외 언론인·전문가 반응

“현대미술은 개념적이고 어렵다는 편견을 깬 기획이 돋보이며, 이미지 속에 담긴 잔잔한 이야기가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감동을 준다.” 제8회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프레스 오픈에 참석한 국내외 언론인들이 작품들을 둘러보며 높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평을 쏟아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2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내 재단 회의실에서 내외신 언론 초청 프레스 오픈 행사를 열었다.

이날 프레스 오픈에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르 몽드, 아사히 신문, 이태리의 라 레푸블리카, 스페인의 엘 피이스, 미술잡지아트포럼 등 국

내외 언론사에서 2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프레스 오픈은 재단 이사장인 강은태 광주시장의 환영사와 마시팔리아 노 지오니 예술총감독의 내외신 초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내외신 초청 설명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미술관, 민속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을 둘러봤다.

미국의 대표 미술잡지 아트넷의 벤 데이비스 기사는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일반인들이 모은 컬렉션을 전시해 쉽고 재미있는 쇼를 만들었다”면서 “최근 많은 비엔날레를 돌아다니며 취재를 했지만 성공적인 비엔날레는 흔치 않았는데, 광주가 하나

의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또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 라르 퍼블리카의 지오바나 아마다시 기사는 “추상적인 현대 미술을 이미지를 통해 쉽게 재해석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삶이 이번 전시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힘이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다 보니 또 다른 ‘이미지 과잉’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다.

인도 일간지 뉴델리 비즈니스 스탠다드의 키슈어 상은 “너무나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다 보니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일부 작품은 너무 감각적이고 해석적이다”고 지적했다.

월간미술 이준희 기사는 “사진 분야에 치중하다보니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설치·회화 등의 장르가 부족해 다소 지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술 전문 기사는 “모든 작가들의 작품이 다 주제와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만인보’라는 주제와 연결고리가 다소 미약한 듯 하다”며 “영상과 사진 작품이 많아 관객을 머물게 하지 못하고 지난 행사보다 흥미로운 작품이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날 오후 7시 비엔날레전시관 앞 야외광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각계 인사와 시민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대중교통분담률 ‘최저 수준’

## ‘분담률 36%’ 전국 평균보다 낮아... 승용차 이용 많아

광주광역권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이 3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등 전국 6대 광역권 평균 48.3%보다 12.3%p 낮은 것으로, 대중교통시설 확충,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토해양부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에 관한 국가교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승용차 수송분담

률은 55.3%로, 수도권(41.5%)·부산 광역권(41.4%)·울산 광역권(49.6%)·대구광역권(53.5%) 등보다 높았다. 이는 도시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중교통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특히 도시철도 연장은 12.0km에 불과했다. 서울(287km), 부산(88.8km), 인천(60km), 대구(57.3km), 대전(22.6km) 등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다.

대중교통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별 및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대중교통정책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전국 지역간 수송분담률은 승용차가 56.8%, 버스 24.6%, 철도(지하철 포함) 15.9%, 항공 2.5%, 해운 0.2%로 나타났다. 2001년과 비교할 때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16.7% 감소한 반면, 버스와 철도는 각각 10.5%, 6.1% 증가한 것이다.

○원형석기자 chadol@kwangju.co.kr

# DJ동상 ‘지팡이 논란’

## 남악신도시·목포상고 짝는 손 위치 달라 검증 목소리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건립된 동상들이 지팡이를 짚는 손의 위치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왼쪽부터) 생전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DJ의 모습. 왼손에 지팡이를 짚는 동상.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는 동상.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상고 재경총동문회가 각각 건립한 DJ 동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터리 고증’을 해 망신을 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달 12일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내 중앙공원 앞 김대중 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전신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DJ 동상은 오른손을 들고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높이 6.3m(좌대 2m 포함)에 청동으로 제작됐다.

목포상고(현 제일고) 재경총동

문회도 지난달 28일 김 전 대통령 묘교인 옛 목포상고 교정에서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이 동상은 김 전 대통령이 왼손을 들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같은 DJ 동상인데도 한쪽은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다른 쪽은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셈이어서 한쪽이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고 날림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측은 김영현 동신대 교수가 동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대중평화센터와 지팡이를 짚는 손가락 위치까지 협의하는

등 세심하게 준비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들은 “DJ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며 개발공사가 건립한 동상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DJ 동상 건립 취지가 그의 생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충분히 상의해 지역민들이 헌신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수상자 선정

### 독일 구스타프 메츠거·설치작가 양혜규씨

독일의 구스타프 메츠거와 설치작가 양혜규씨가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을 수상했다.

‘눈 예술상’은 광주비엔날레 공식 메거진 NOON 이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일 개막식

에서 창의적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참여 작가를 선정·수상하는 ‘눈 예술상’ 중견작가 수상자로 구스타프 메츠거, 신진작가 수상자로 양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견작가 수상자에게는 1만달러, 신진작가 수상자에게는 5000



메츠거씨 양혜규씨

달러의 창작 지원금을 수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구스타프 메츠거는 1938년 오스트리아의 유대인들이 길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 조롱하는 시민들을 담은 사진작품(297×400cm) 위를 관람객들이 기어다니는 이색 작품을 전시한다. 또 양씨는 크리스마스 조명, 쇠조각, 전구 등을 이용해 만든 설치 작품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을 선보였다.

한편 눈예술상의 심사는 오쿠이 엔위저 제7회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과 테이트 모던 갤러리 비센테 토들리 관장 등이 맡았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그게 시능으로 잡힐까?

### 신안 천일염특구·강진 고려청자특구

#### 지정부 평가 ‘우수’...상금 1억씩

신안 천일염산업특구와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가 우수 지역특구에 선정돼 지경경제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1억원을 각각 받았다.

지경경제부는 2일 전남 지정부 공무원교육원에서 ‘2010 지역특구 합동 연찬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지역을 포상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우수특구 시상에서 대상은 경북 상주 참외산업특구에 돌아가 지경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2억5000만원이 주어졌다.

또 전남의 신안 천일염산업특구와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경남의 고성 조선산업특구와 경북 청도 반시나리특구 등 4곳이 우수상에 선정돼 장관 표창에 더해 1억원씩을 받았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연찬회에서 “지역특구에 한해 주어지는 ‘완화된 규제’를 민간이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특구간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효과 배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서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 “출발2010, 제2의 창학원년” 학교법인 우암학원 창학60주년

## 전남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POST-BI 입주기업 모집

전남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 초기기업 및 우수한 아이템 보유 예비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기업 - 0개 기업
2. 기업 입주 공간 - 28.05㎡(8.5평), 56.1㎡(17평), 165㎡(50평)
3. 신청자격
  -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산·학 협력 가능한 사업자 및 예비사업자
  - 광주광역시 중점 육성사업인 광(광)산업 및 자동차 기계산업 분야 우대
4. 입주부담금
  - 입주관리비: 13,500원/3.3㎡, POST-BI 일부 11,000원/3.3㎡
  - 입주보증금: BI ⇨ 200,000원/3.3㎡, POST-BI ⇨ 100,000원/3.3㎡
  - 전기료, 전화비 별도
  - 연차별 정수제 적용
5.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0-14 전남과학대학 POST-BI
  - 연락처 : 062)971-5020, 971-8797

---

### 전남과학대학 2011 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 수시 1차 접수기간 - 인터넷: 2010. 9. 8. ~ 10. 6. - 창 구: 2010. 9. 13. ~ 10. 7.	◆ 정시 1차 접수기간 - 인터넷: 2010. 12. 20. ~ 2011. 1. 5. - 창 구: 2010. 12. 20. ~ 2011. 1. 6.
◆ 수시 2차 접수기간 - 인터넷: 2010. 10. 18. ~ 11. 30. - 창 구: 2010. 11. 15. ~ 12. 01.	◆ 정시 2차 접수기간 - 인터넷: 2011. 1. 17. ~ 2011. 2. 16. - 창 구: 2011. 1. 17. ~ 2011. 2. 17.

모집학과: 물리치료과, 직업치료과, 간호과, 유아교육과, 인공관절학과, 특수장비과, 특수수업과, 화학부사과, 해군통신레이더과, 관광통역과, 호텔관광리더학과, 호텔조리김치발효과, 태권도체육과, 무도경호과, 협기도과-해동검도과, 방송모델과, 뷰티미용과, 기독교영성교육과, 생활체육과, 골프/프로케디과, e-스포츠과, 대체의학과, 거인제직과, 자동차과, 지리정보토목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음악과, 화형예술과, 언어재활과, 지리정보학과

www.chunnam-c.ac.kr TEL: 061-380-5000 FAX: 061-388-5020 전남 곡성군 옥리면 옥로리 285

## BUSINESS

- 교육훈련과정 -

연번	훈련 과정명	훈련 방법	훈련 일수	훈련 시간
1	웹기획&디자인	집체	5	20
2	편집출판디자인	집체	5	20
3	시각디자인	집체	5	20
4	네트워크보안실무	집체	5	20
5	Oracle 10g	집체	10	30
6	Java웹프론트엔드과점	집체	5	20
7	Frame Work개발과정	집체	5	20
8	임베디드·인드라이드 과정	집체	5	20
9	USN System개발	집체	5	20
10	LabView과정	집체	5	20
11	제출디자인	집체+현장	5	20
12	3차원설계및 치수검사	집체+현장	5	20
13	실무자를 위한 고급 Excel	집체	5	20
14	DFSS	집체	5	20
15	EFP회계모듈	집체	5	20
16	EFP물류모듈	집체	5	20
17	PM양성과정	집체	5	20
18	전략기획	집체	5	20

합 계 18개 과정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이란?  
대기업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기관이 무료 연수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제도

●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미만)의 재직근로자

●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의 특징  
\* 각종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전액 정부 지원  
노동부의 전액국비지원 하에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신청만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정소 및 시기 교육내용은 기업이 원하는 내용으로 실시 가능  
\* 재직근로자의 업무향상기대  
중소기업의 임직원 능력개발 기회부여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정적인 인력관리 및 생산성 향상 제고  
\* 자기개발을 통한 성취감 증대  
업무시간 외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문의 062) 380-8403-6 / Fax 062) 380-8443**

주관: 호남대학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단 후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